Toho, 카티온화 다당류 4종 개발

샴푸·린스에 식품까지 적용 확대 … 일본 최고자리 확고히 굳혀

Toho Chemical이 샴푸, 린스 등 천연계 컨디셔닝제로 사용되는 카티온화 다당류 4종을 개발했다.

식품에 사용되는 로카스토빈검 등 종자에서 추출한 다당류를 카티온화한 것으로 소량을 첨가하면 이제까지 느낄 수 없었던 촉촉함과 부드러움 등의 감촉을 줄 수 있다.

Toho Chemical은 천연 컨디셔닝제로 널리 보급돼 있는 카티온화 셀룰로이스와 카티온화 구아검으로 일본 1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능을 가진 제품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개발에 주력해 왔다.

신규 개발된 카티온화 다당류는 일본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전개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미 거래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몇년 뒤에는 현재의 주력제품에 필적하는 매출규모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즘 샴푸, 린스, 보디 샴푸 등의 욕실용품 시장에서 유통업 주도의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욕실용품 전문기업에게는 차별화를 통해 저가격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익확보를 위한 가장 큰 열쇠가 되고 있다.

Toho Chemical이 개발한 신 카티온화 다당류는 사용 시의 기능, 감촉 면에서 욕실용품의 차별화를 가져온다. 로카스토빈검, 페누그릭검, 타라검, 타마린드검의 종자를 원료로 하는 4가지 다당류를 각각 카티온화함으로써 머리카락에 흡착하기 쉽게 하며 1%의 소량만 첨가해도 윤기와 촉촉함, 매끄러움, 풍부한 거품, 내염성, 찰랑거림 등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Toho Chemical은 몇년 전부터 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다당류에 주목해 욕실용품에도 카티온화를 응용하기 위한 연구를 거듭해 왔고 연구과정에서 원료의 다당류 차이에 따라 특정 기능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감촉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4개의 신제품을 발매했다.

종래의 제품과 차별화된 감촉은 전문가인 미용사 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도 느낄 수 있을 만큼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사의 풍부한 상품라인을 기반으로 샴푸 등의 배합처방으로써 신 컨디셔닝제와 계면활성제 등과의 최적 조합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해외시장에서도 샘플작업을 개시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식품원료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카티온화 다당류를 수시로 상품화할 계획이다.

Toho Chemical은 샴푸 등의 컨디셔닝 성분에 있어 촉촉한 느낌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카티온화 셀룰로이스와 산뜻한 느낌을 주는 카티온화 구아검으로 일본 최고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1986년 일본 최초로 양이온화 셀룰로이스 분말화 설비를 건설하는 등 카티온화에 관한 생산기술에서 고도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Chiba Sodegaura와 Kanagawa Yokosuka에 총 400톤을 생산하는 일본 최대의 전용 설비를 갖추고 최대한 활용해 수요증가에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4/07/27>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